

## 6) 호암산(虎岩山)

해룡면 남가리 대가마을 뒤에 호암산이 있다. 8부 능선에 바위가 많아 흙을 볼 수 없을 정도이다. 그 많은 바위 가운데 제일 큰 바위가 ‘범바구’이다. 20m 쯤 수직으로 깎은 듯이 서 있으며 17평쯤 되게 넓고, 대패로 깎은 듯이 반듯하다. 옛날에는 그 바위를 사람 키의 50길이 된다고 ‘쥘질바구’라고 불렀다.

임진왜란 때 권율의 막하에서 무공을 세우고 경상좌병사, 제주목사를 지냈던 성윤문(成允文)이 젊어서 소동패를 거느리고 그 바위 아래 이르렀는데 때 아닌 폭우가 쏟아졌다. 그래서 바위 밑에 의지해 비를 피하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 앞에 다가와 웅크려 앉았다. 모두 무서워서 벌벌 떨었으나 성윤문은 대장답게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호식될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 있는겁다. 각자 옷옷을 벗어 호랑이에게 던져라!” 라고 외쳤다. 차례차례 옷옷을 벗어 호랑이한테 던졌으나 옷을 모두 되돌려주었다. 이것을 본 성윤문은

“내가 호식 팔자다!”

하고 옷옷을 벗어 던졌다. 그러자 호랑이가 옷을 덥석 받아들고 돌아갔다. 성윤문은 부하들을 둘러보고

“내가 호랑이 밥이다!”

한 마디 말을 하고 호랑이 뒤를 따랐다. 얼마쯤 따라가자 난데없이 벼락이 그 바위에 떨어졌다. 그 바람에 바위가 무너져 부하들이 모두 깔려 죽고 호랑이는 온데간데가 없었다.

그뒤부터 ‘범바구’라 부르고 그 산을 호암산이라 불렀다. ‘쥘질바구’, 곧 호암 아래 소안마을 쪽에 성윤문의 묘가 있다. 어느 도사가 마을 뒤에 명당이 있는데 병사가 날 명당이란 말을 듣고 할아버지를 모셨더니 성윤문이 병사가 되었다는 말이 마을에 전한다.